

한국의 건강지표 조사사업의 고찰

- 건강조사 -

최 정 수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전국규모의 건강면접조사, 건강검진조사 그리고 의료기록조사 등이 있다. 건강면접조사는 시설수용자를 제외한 일반거주 국민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로 질환이나 장애의 수준, 분포 및 이로 인한 결과와 치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병상태를 함께 제시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가 여기에 속한다. 건강검진조사는 전문의료인에 의한 직접적인

검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 인구집단의 절대적 의료요구를 측정할수 있다. 그러나, 소요되는 경비가 막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결핵실태조사만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록조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료를 제공받은 인구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조사가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조사시기	조 사 명	주 관	표본특성(지역, 표본가구수)
1962년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 500가구
1965년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 1000가구
1966년	건강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 1000가구, 기타 시·군 - 247가구
1971년	국민건강조사	보건복지부	전국 - 1719가구
1983년	국민건강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200조사구) - 10,000가구
1985년	질병상해통계조사	보건복지부	전국(209조사구) - 10,000가구
1989년	국민건강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178조사구) - 11,500가구
1992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110조사구) - 6,600가구
1995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110조사구) - 6,600가구